



유범상
선배시민학회 회장

선배시민협회(준)

창립회원 특별강좌

선배시민협회 회원 가입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모두

제1강

선배시민 철학의 이해

유범상 교수

2024년 1월 6일(토)
15-17시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
3층 세미나실

제2강

선배시민 실천의 이해

유해숙 교수

2024년 1월 20(토)
15-17시

성동 50플러스센터 3층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제3강

선배시민협회 운영전략

선배시민협회

2024년 2월 3일 (토)
15-17시

서울교대사향융합체육관
3층 세미나실

- ☑ 참가비 : 특강 횟수에 관계없이 1만원 (회원은 무료)
- ☑ 비회원 현장 회원 가입시 참가비 면제

선배시민협회(준)

연락처 : 02.2088.5568, 010-4658-8508(박진상),
010-9417-6027(김선이), 010-6335-5865(노은실)



선배시민협회(준)

창립회원 특별강좌



선배시민협회 회원 가입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모두



제1강

선배시민의 철학

이상이 이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 유범상 교수 -

2024.01.06.(토)
15시~17시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
3층 세미나실

제2강

선배시민의 실천

상상이 이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라

- 유해숙 교수 -

2024.01.20.(토)
15시~17시

성동 50플러스센터 3층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제3강

선배시민협회의 상상

우리가 걸어가면
같이 됩니다

- 선배시민협회 -

2024.02.03.(토)
15시~17시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
3층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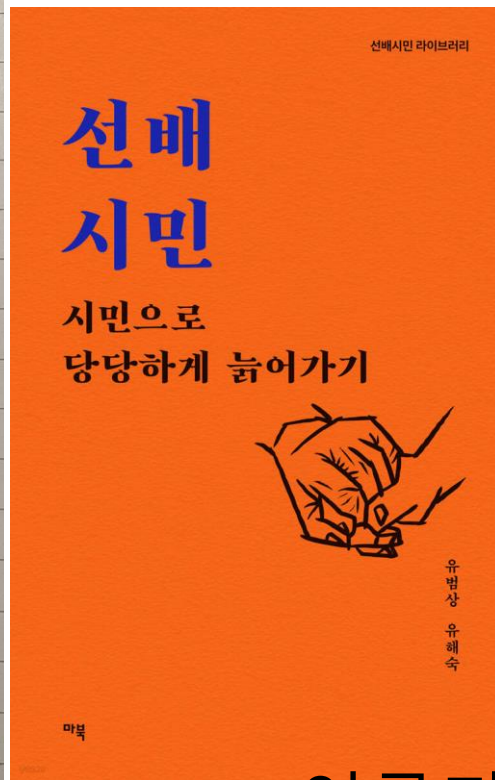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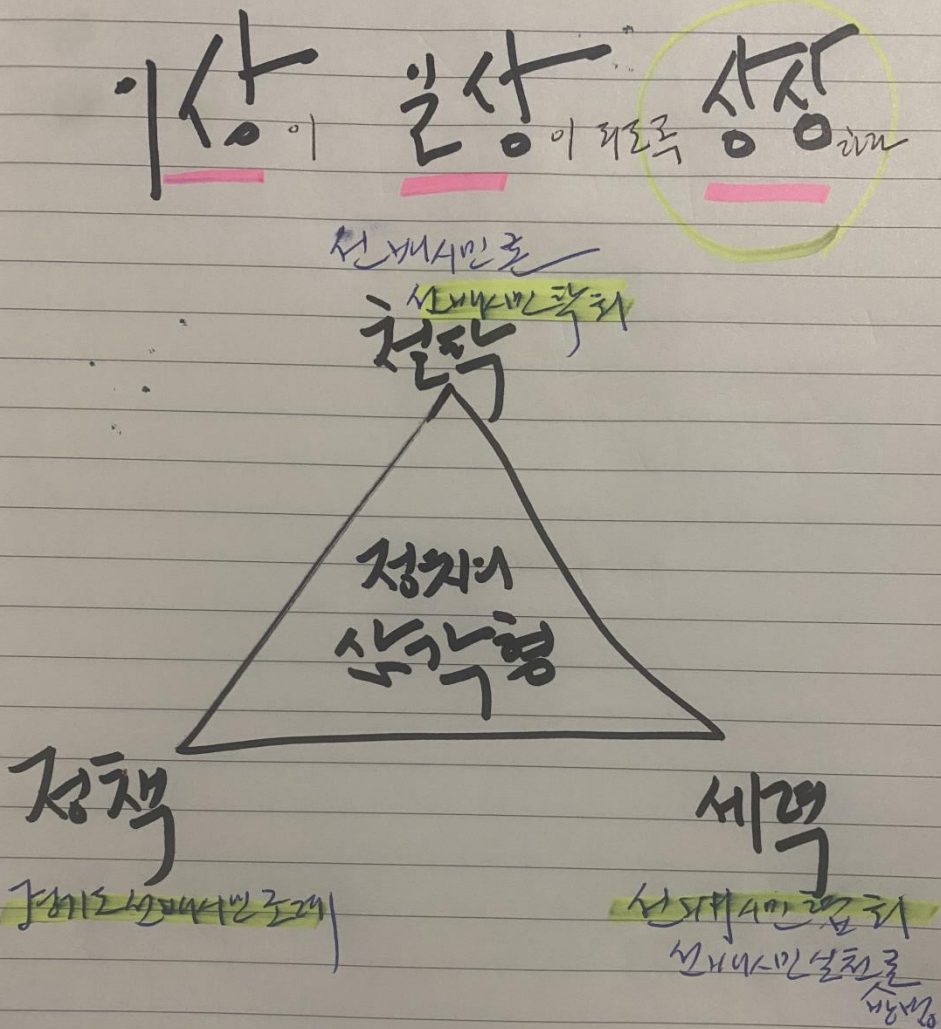
- ☑ 참가비: 특강 횟수에 관계없이 1만원 (회원은 무료)
- ☑ 비회원 현장 회원 가입시 참가비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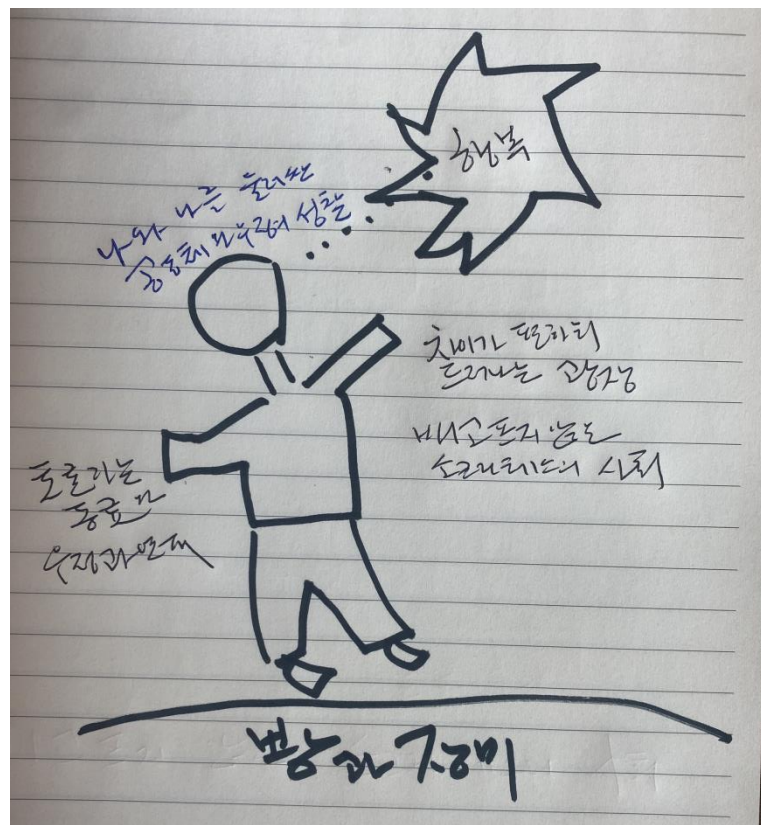
연락처: 02-2088-5568,
010-4658-8508(박진상),
010-9417-6027(김선이),
010-6335-5865(노은실)



정책과 제도를 상상하라!



이론과 실천



“자네는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석면 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은 할 수가 없어”(조정진, 2020: 122).

Homo
economi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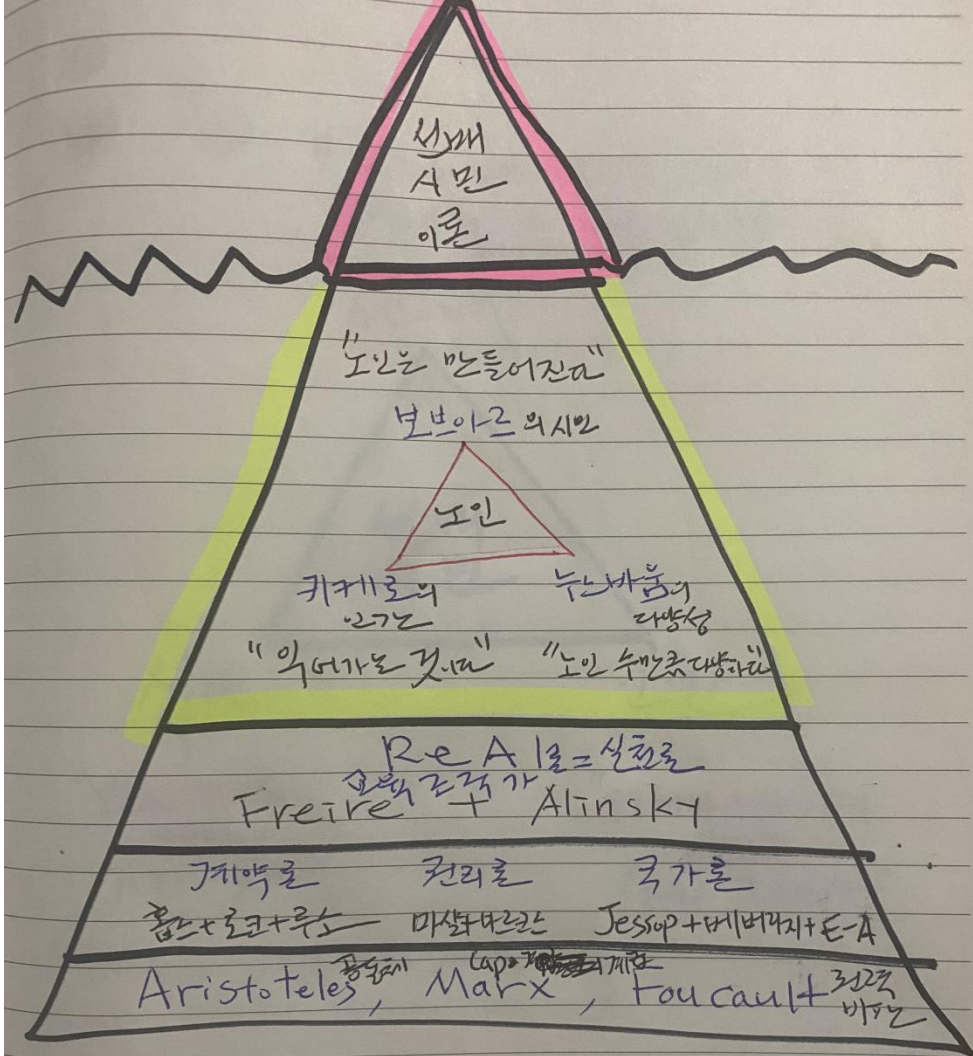
“자본주의는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힘쓴다. 생산품이 더 풍부해지면서 체제는 이윤의 상승을 요구한다. 고령 노동자들은 부과된 일의 신속성을 따라갈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실직을 당하게 되며, 사회는 고령 실직자들을 최하층민으로 취급한다”(보브아르, 2020: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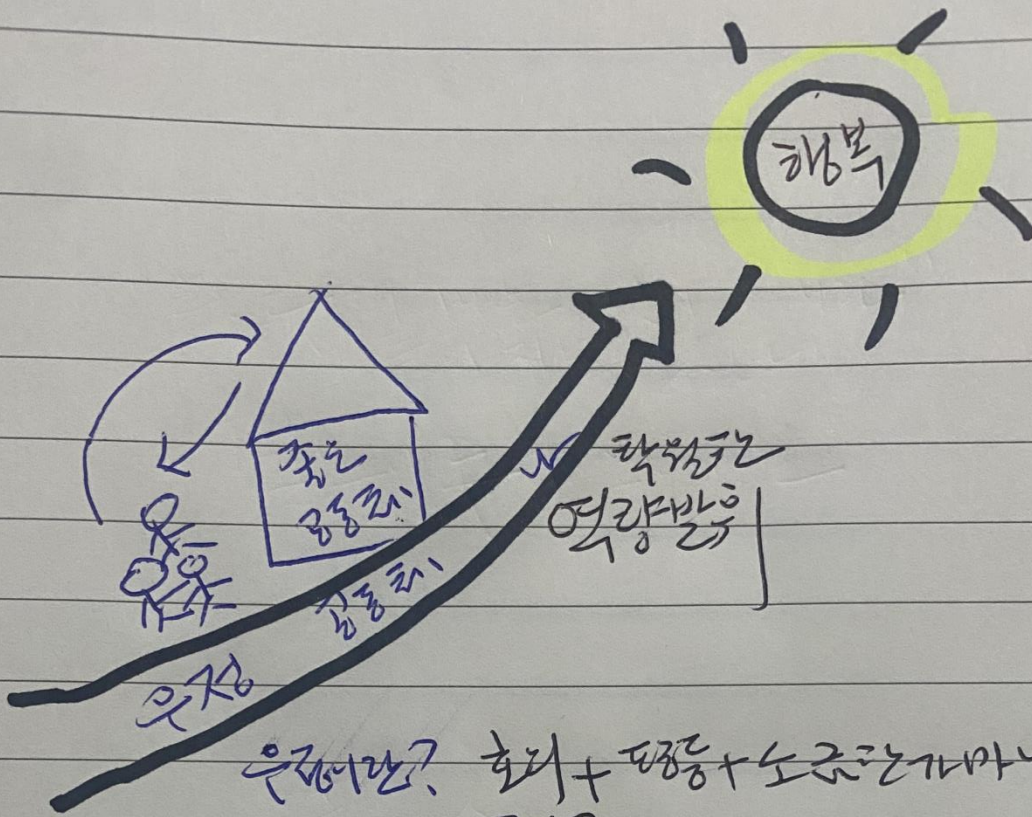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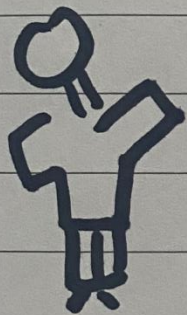
“노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일반적인 대화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통념이 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고령 환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 마치 아기에게 말하듯 높은 음조와 유난히 또렷한 발음을 구사한다. 이런 말투를 ‘어르신 언어elderspeak’라고 부르기도 한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정신적인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아기 말투를 듣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무조건 무능하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서투르다고 간주된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된다”(누스바움, 2018: 120-12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가운데 가장 유해한 것 한 가지는 노인들에게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에 따르면 노인들은 그저 운명의 희생양일 따름이다. 물론 운명이 어딘가에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우리는 운명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누스바움, 2018: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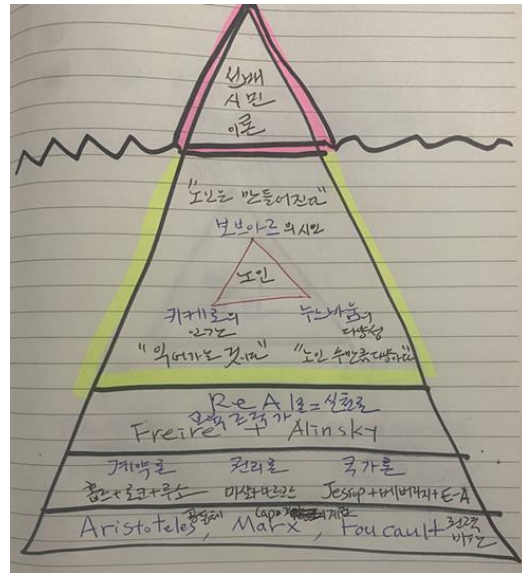
“성인 남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살고 있는 여자나 청소년들은 노인들보다 훨씬 자기 방어력이 강하다. 아내는 봉사를 한다. 잠자리 시중을 들고 집안일을 한다. 청소년은 급료를 요구할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이다. 노인은 쇠퇴와 죽음을 향하여 치달을 뿐이다. 그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야말로 거추장스러운 무용지물이다. 사람들은 노인을 하찮은 존재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보브아르, 2020: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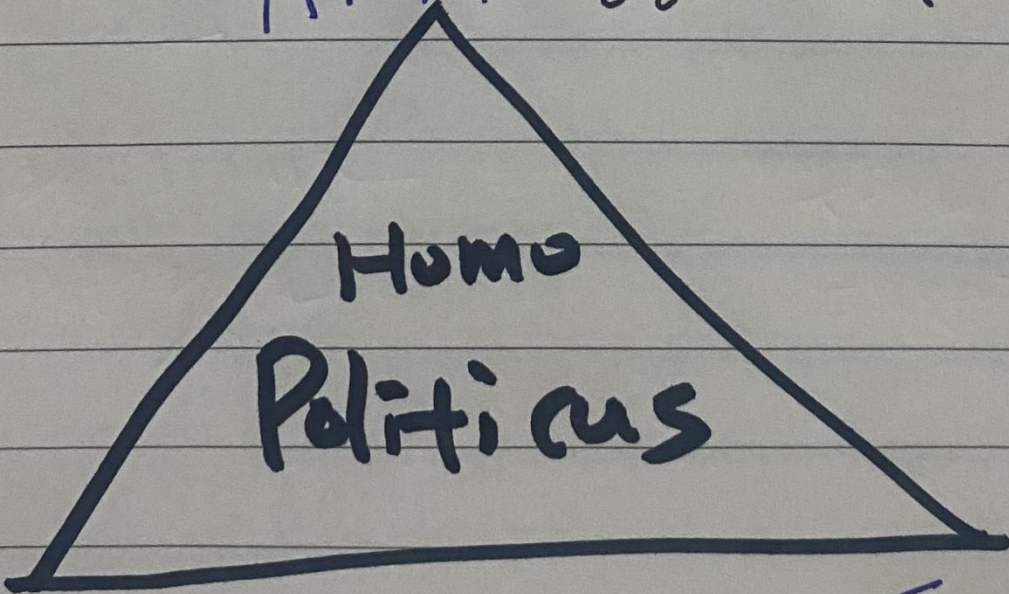
선배시민론 이론의 지형도





우리가? 화의 + 평등 + 소중함 가나니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가 지켜주고!



Aristo 통치권! 

Homo
Politicus

Marx

노동생산관계 비판

인권을 비판

Fouca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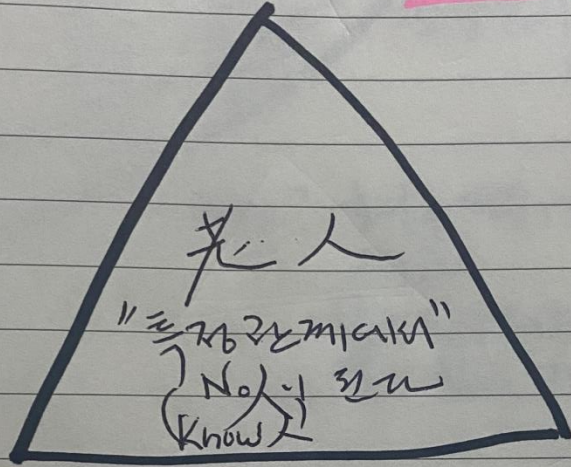
지식/권력 비판

정치의 구조 비판

-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갖고 있다. 그 권리는 목소리, 빵, 차별과 관련되어 있다.
- 모든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자각해야 한다. 앎은 서로 학습하고 대화할 때 가능하다.
- 권리는 권력이 있을 때 얻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 이때 권력은 좋은 우정과 연대에 기반해서 얻어진다.

"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임"

브브아르의 노년시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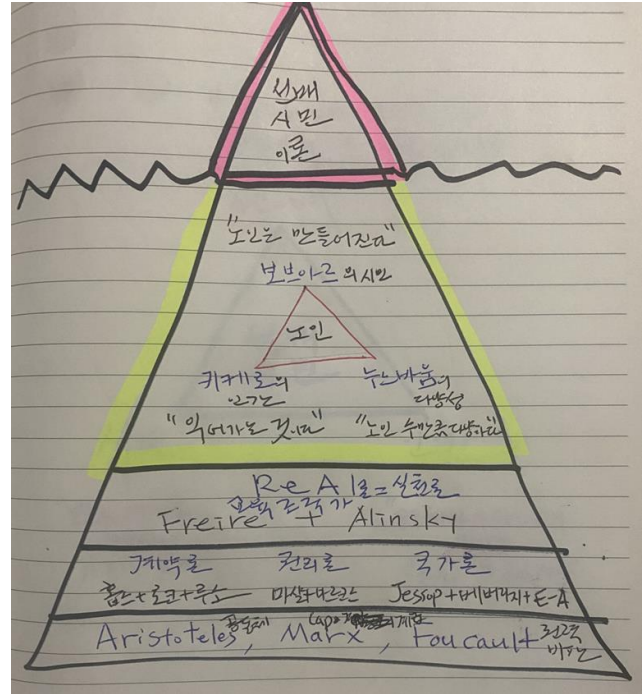


카케론의
노년인간론

누느바호
노년다양성론

"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임"

"누구나 자기역량을 가진
다양한 존재이다"



나 이 틀 의 의 미 와 그 위 대 함

Simone de Beauvoir

[illegible]

시몬 드 보부아르 지음 | 홍성희·박혜영 옮김

객체상

기생충

노년에
관하여

De Senectute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지혜롭게
나 *Aging Thoughtfully* 이
든다는 것

현명하고 우아한 인생 후반을 위한 8번의 지적 대화

마사 누스바움

안전이 으뜸

슬레브모어

세계 100대 지성 마사 누스바움과
슬 레브모어가 말하는
나, 타인, 세상을 돌보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

“나이를 들을 다른 책 가운데 최고다.”

— 캐스 R. 선스타인, 하버드대학교 교수, 《넛지》 저자

어디까지나

“분별력과 이성과 현명한 조언은 노인들 몫이네. 그러니 노인들이 없다면 어떤 국가도 존재할 수 없었을걸세”(키케로, 2000: 78).

“사람들은 노인들이 통명스럽고 대화하기 힘들고 화를 잘 내고 까다롭다고 말들 하지. 우리가 잘 관찰해본다면 그들은 인식하기조차 하다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성격상의 결점이지 노년 특유의 결점이 아니라네. 방금 말한 노인들의 통명스러움과 그 밖의 결점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타당하게 보일 수 있는 변명거리가 있다네. 자신이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비웃음을 산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하다네. 더욱이 쇠약해진 육체에 대해 어떠한 타격도 가증스러운 것이라네. 그러나 이 모든 결점은 좋은 성품과 수련에 의하여 달콤한 것이 된다네”(키케로, 2000: 98).

“노인에게는 무위의 권리가 있다. 마침내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드디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법 밖으로 사라진다. 아이들처럼 노인은 도덕과 무관하고 이러한 도덕의 부재는 신기한 안정, 내적인 영감을 가져온다”(보브아르, 2020: 681).

“늡기는 동사의 세계라기보다는 형용사의 세계이다. ... 이 흐린 시야 속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연히 드러난다. ...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욱 선명하다. 이것은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의 세계이다”(김훈, 2019: 74).

“나이듦은 일반화의 위험이 아주 높은 주제다. 우선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비교해도 노년기에는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일찍부터 심각하고 치명적인 병에 시달린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게 살면서도 치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벌써 치매를 경험한다. 치매의 유형도 다양하다”(누스바움, 2018: 209).

역량접근법은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활동을 선택할 실제적인 기회”를 중시하며,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역량목록’에 포함된 구체적인 기회들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누스바움, 2018, 381). 보부아르는 역량이라는 담론에 주체성이 담겨있다면 누구나 다 선택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철학자여,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경험은 그저 당신의 경험일 뿐이요. 그러니 계속해서 배우시오. 당신 자신과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시오. 사람들에게 삶을 어떻게 경험해야 한다고 설교하기 전에 그들이 경험하는 삶에 대해 물어보시오. 당신의 삶과 똑같지 않은 삶들에서 의미를 발견할 준비를 하시오. 다양성을 존중하십시오”(누스바움, 2018: 219).

“착취당한 사람들은 늙으면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빈곤과 불편한 거처와 고독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실추의 감정과 전반적인 불안감이 뒤따른다. 그들은 멍청하게 얼빠진 상태에 빠져 드는데, 그것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정신질환들은 대부분 체제의 산물이다”(보브아르, 2020: 758-759).

“노년은 우리 문명의 모든 실패를 고발한다. 노인의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온통 다시 만들어 내야 한다. 인간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재창조해야 한다. 한 인간으로 하여금 말년을 빈손으로 외롭게 맞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보브아르, 2020: 760).

보브아르는 노인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노인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온다면, 그것이 인간의 목소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나는 이 책[노년]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하고자 한다”(보브아르, 2020: 9)고 말한다.

“인간에게 진보란 무엇이고 퇴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일은 어떤 목표에 의거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목표는 절대로 선형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어느 사회나 각자 고유의 목표를 창출해낸다. 따라서 사회라는 배경 안에서만 쇠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바를 확인시켜 준다. 즉 노년은 총체성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년은 단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보브아르, 202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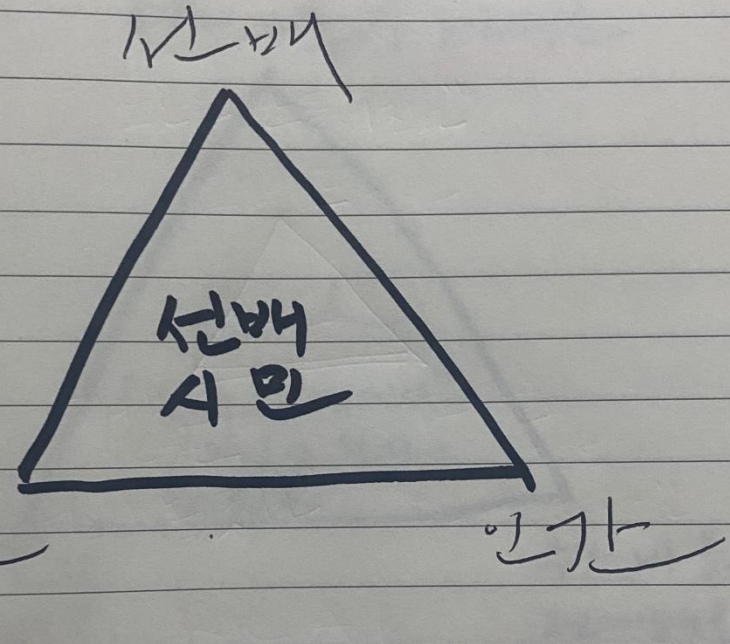
첫째, 노인은 나이든 보통사람이다.

둘째, 노인은 수만큼 다양하다.

셋째,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돌보는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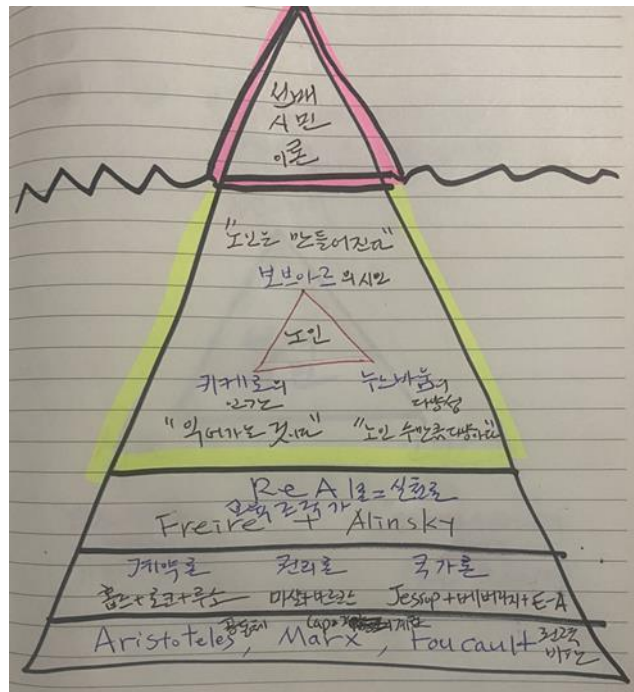
넷째, 노인의 행위는 생존과 노동을 넘어서서 실존과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11 시민과 인간이라는 것은 없고
 그것의 뒤고자 **아름다운데서**
"문화상승"이다.



"**문화상승**을
권리로
 가지고 있다"

"**공동체**와 **우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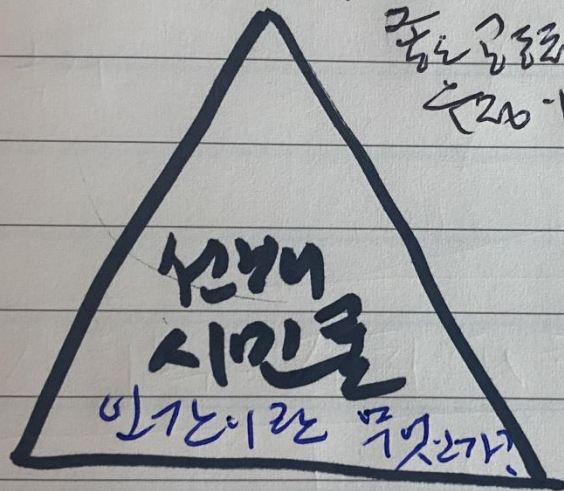
첫째, 노인은 시민이다. 노인은 빵을 시민권으로 획득한다. 그러므로, 노인은 빵의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둘째, 노인은 인간이다. 노인이 실존을 물으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셋째, 노인은 인간과 시민답게 살아갈 우정과 공동체를 마중하는 존재이다.

수정 ^{라면} 대
~~중호 시민~~
 후배 시민

중호 공중회 ^는 만드는
 수로 ^이 ^것 ^을 ^만 ^들 ^기 ^다?



공중회

어떤 공중회이든
 쓸 것 같다?

지바생찰

나는 누구인가?

“인간행위는 행동과 성찰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프락시스이며 세계의 변혁이다. 인간행위는 곧 프락시스이기 때문에 이론을 필요로 한다. 인간행위는 이론과 실천이며, 성찰과 행동이다”(프레이리, 2015: 149).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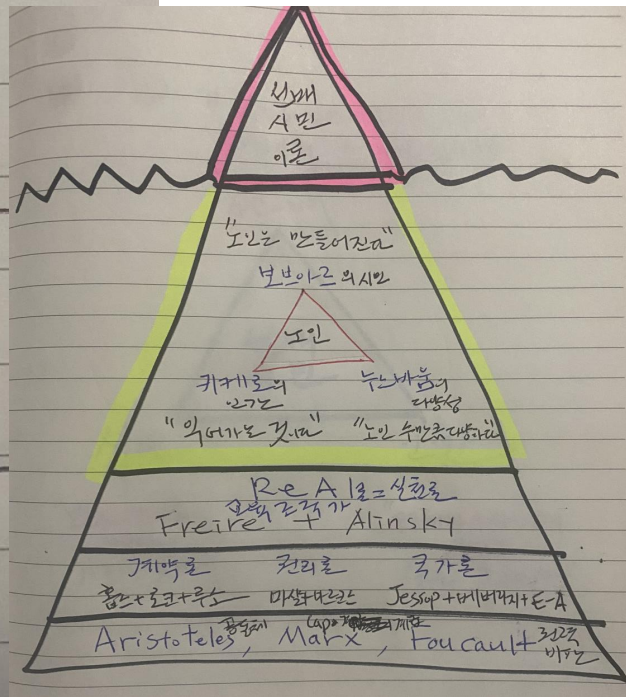
Not know & know & not know
존재의 대/상에서 존재로

대중의

선생사민
학생권

이론

?



작업

새창열기

2기목으로 공중에서
작성하기

신개념
평화

노동(대화)

조금씩 조금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루어진다.

반전

새창열기

- 치이갈판리
리나를 공중
- 배고파서 먹는
소근육의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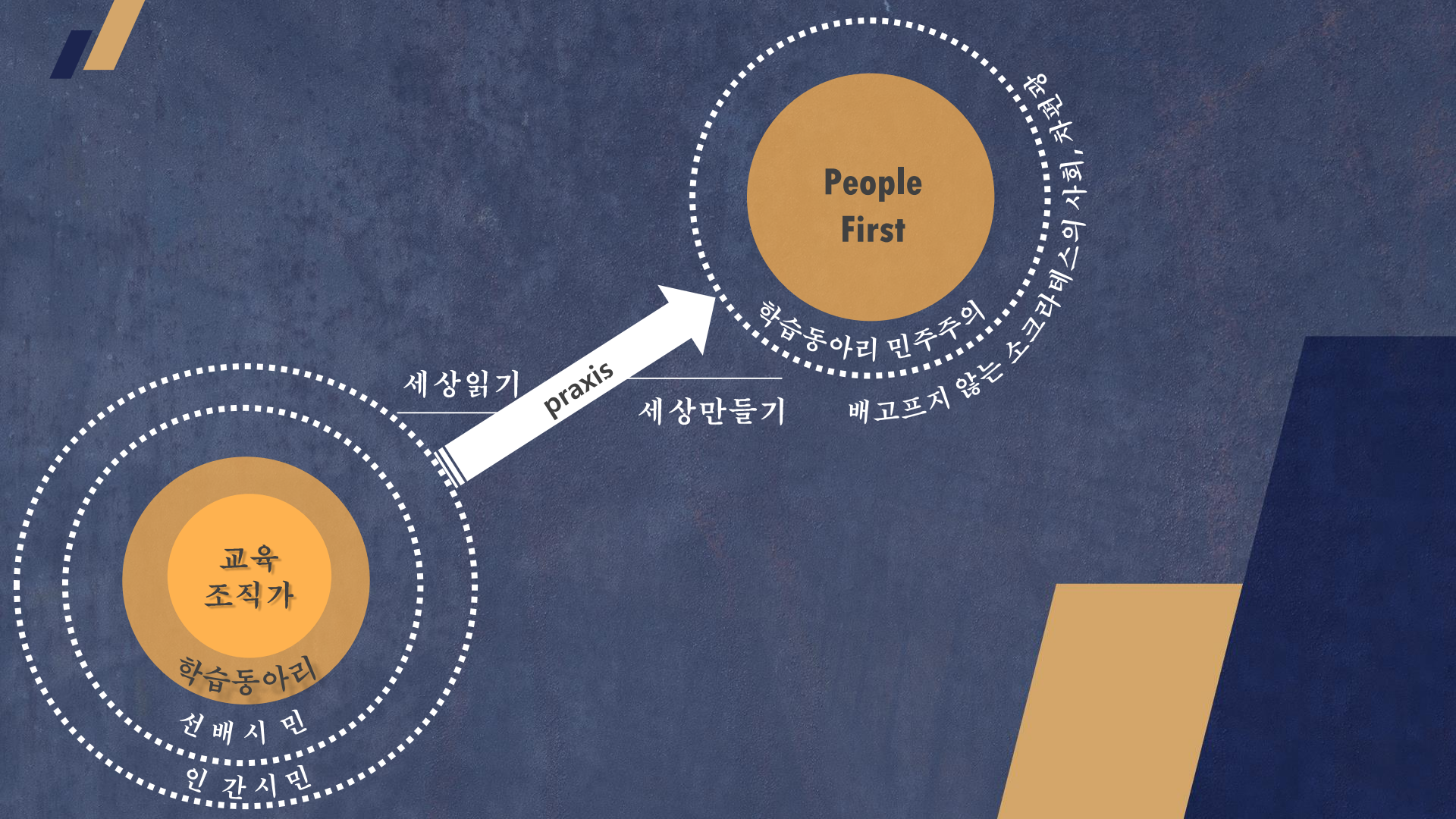
■ 마중물 민주시민대학이란?

사단법인 마중물이 운영하는 시민대학입니다.

매년 1년에 한번 열리며, 120시간 이상을 함께 공부합니다.

세계시민과 시민인문학, 선배시민, 후배시민을 위한 시민강사와 학습동아리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나는 민달팽이, 너는 나비
나는 딱정벌레, 너는 매미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한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밥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너는 민달팽이, 나는 나비
너는 딱정벌레, 나는 매미
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한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밥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

유범상 지음 | 유기훈 그림



마북